



제주 가시리마을의 목축문화 기반 농촌관광 창출에 관한 연구*

- 융합관광의 관점에서 -

Study on Rural Tourism Creation based on the Stock-Farming Culture of Gasiri Village,
Jeju: From a Convergence Tourism Perspective

장혜원** · 오상훈*** · 최병길****

Jang, Hye-Won · Oh, Sang-Hoon · Choi, Byung-Kil

요약 : 산업융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에 증대한 영향을 미쳐온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융합은 학술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주목해왔다. 더구나 실제 산업 환경에서 융합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융합관광의 관점에서 문화기반 농촌관광이 창출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2011년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인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 제주 가시리마을을 사례로 하였으며, 표본은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된 제주조랑말체험공원으로 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시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문화기반 융합관광은 산업융합,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핵심용어 : 산업융합, 융합관광, 농촌관광, 마을 만들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구술사, 증언 구술, 가시리마을, 목축문화, 제주조랑말체험공원, 융합이론, 생태문화관광, 6차산업화, 지속가능한 관광

ABSTRACT : Industry convergence is a phenomenon that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several industries over the past decades. Despite this, industry convergence has only received limited attention from the academic field. Moreover, there is lack of case work concerning actual convergent industry settings. This paper explores rural tourism creation based on a stock-farming culture focusing specifically on convergence tourism. The research case is Jeju Gasiri Village which was promoted by the New Cultural Spaces Project during 2009~2011. The case sample is the Jeju Horse Park that was created by the New Cultural Spaces Project. Participant observation and a deep interview were conducted during November, 2014~April, 2016. These results imply that culture based rural tourism involves industry convergence, ecotourism, and sustainable tourism.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limitations of research.

Key words : Industry convergence, Convergence tourism, Rural tourism, Community building, New cultural spaces project, Oral history research, Oral testimony, Gasiri village, Stock-farming culture, Jeju Horse Park, Convergence theory, Eco-cultural tourism, 6th industrialization, Sustainable tourism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2016213).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lovepiano9928@hanmail.net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shoh323@jejun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choice21@jejunu.ac.kr

I. 서 론

융합(convergence) 패러다임의 대두는 기존 산업의 성장성을 지속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사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산업에서도 융합 비즈니스 발굴을 통한 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융합관광은 그 유형마다 융합의 배경, 과정, 결과 등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합이란 경계의 해체(deconstruction) 또는 분화(divergence)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융합관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다'가 아닌 '되다'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성호, 2012; 장혜원, 2016).

융합관광의 유형 중 대표적인 가치 창출형으로 분류되는 농촌관광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FTA협정 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정부주도에 의해 개발되어 오고 있다(권영미, 2010). 특히 마을 만들기 기반 농촌관광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주체적 운영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추진한다는 것은 추진과정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주민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배기택, 2012), 농촌관광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관점에서 농촌관광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촌관광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민참여(김인환, 2009; 박주희, 2009; 안중현, 2008), 활성화(방한영, 2003; 손기호, 2007; 이학주, 2010), 유형(강영은·박미정·김상범·김은자, 2012), 성공요인(김영수·박종안, 2009; 최성준, 2009), 갈등(권봉관, 2016; 김보미, 2010; 성윤미, 2008; 이병원, 2005) 등에 집

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관련 주제의 성과 또는 과정 중의 특정 문제에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을 뿐 주민 관점에서 농촌관광의 창출과정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술사를 적용하여 마을 문화 자원이 농촌관광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마을주민들의 경험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으로 재현시키는 구술사는 가까운 과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유용한 연구방법론이다(윤택림·함한희, 2007). 제도권이나 협회 및 단체, 기관에 의한 성과중심의 연구와는 달리 구술사는 평범한 개인의 기억 또는 경험을 역사화 하는 과정으로(이상태·허영란, 2004), 농촌관광이 창출된 과정을 마을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추진주체들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는 '제주가시리마을'로 선정하였다. 가시리는 문화형 마을 만들기 사업인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평가받는 마을이다(제민일보, 2012.05.29). 이 사업을 통해 가시리는 지역의 목축문화를 테마로 조랑말체험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구술내용 참조). 사례의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연구과정과 유기적으로 병행하였으며, 사업의 추진 배경, 과정, 현황 등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경험 구조를 질적 자료의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 학술적 글쓰기를 하였다(김귀옥,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과 관련된 마을의 변화를 기록하는 하나의 아카이브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관광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질적 연구의 유용성을 환기함으로써 연구방법론의 다양성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융합관광 및 농촌관광의 개념

융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수렴의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융합은 고정된 중심이 아닌 끊임없이 바뀌는 운동체이며(김성호, 2012), 다양한 주체들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 만나고 접합되어 새로운 가치가 완성되는 열린 체계로 연구영역에서 융합의 개념은 주로 정책, 산업, 과학기술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신동희, 2011).

융합 개념을 산업의 개념에 적용한 것이 산업융합이다(장혜원, 2016; Weaver, 2007).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며, 그 경계는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술과의 융합은 산업융합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혜원(2016)은 산업융합의 개념에 기초하여 융합관광의 개념적 정의를 하였는데, 융합관광을 관광산업과 타 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와 공조를 통해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내발적 혁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하였다. 안희자·심원섭(2013)은 융합관광의 유형을 융합의 정도에 따라 기능 복합, 기술 결합, 가치 융합으로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가치 융합에는 농촌관광, 의료관광, MICE, 한류관광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가치창출형 융합관광의 하나로 농촌관광은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안종현, 2008).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 등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된 결과 다소 공급지향적인 특징을 보여 왔으며, 개념 또한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김보미, 2015).

수요자 측면에서 농촌관광은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등장한 대안관광의 한 형태이다. 위락중심의 관광행태와는 달리 관광을 통해 자연의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지역사회의 가치들의 지향점이 일치하는 데에서 출발한 포괄적 개념의 관광형태이다(김남조, 2004; 김미경·이희찬, 2007; 김종성, 2014; 이후석, 1998). 반면 공급자 측면에서 농촌관광이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객으로 하여금 농촌을 체험하거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관광유형으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은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진전된 융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안희자·심원섭, 2013). 특히 농촌의 6차 산업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농업의 1차 산업과 농축산물의 가공·식품제조를 담당하는 2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관광, 도·소매 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3차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융합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융합의 관점에서 농촌관광의 창출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추진주체인 마을주민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주체 관련 연구 동향을 보면 주민참여 및 역량(박한식, 2008; 안종현, 2008; 오승영, 2009), 경영(도경록·박덕병, 2012; 박덕병·김소운, 2016), 갈등(김보미, 2010; 김인환, 2009; 오형은·김우근, 2004; 이병원, 2005; 장우환·권중섭, 2011), 지속가능성(고동완, 2009; 송영민, 2010) 등이며, 추진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박헌춘, 2012; 배기택, 2012).

2. 농촌의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관광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공통성을 가진 자원을 핵심매력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을

만들기는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에서 시작된 개념으로(延藤安弘, 1997; 박현춘, 2012 재인용), 주민이 지역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원의 공동 관리를 지향하는 운동, 또는 거주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여 계획에 주민참여를 도모하는 것,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며, 보다 편리하고 인간답게 생활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장을 만들어가는 방식 등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1980년대에 시작된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등 시설 위주의 농촌관광 정책뿐만 아니라 1990년대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어촌휴양지조성사업, 관광농원 개발사업 등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졌다. 이후 2000년대에 나타난 중앙부처의 관광관련 정책들은 80~90년대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된 결과이다(박시현, 2003). 이 시기부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과 같은 마을단위 농촌관광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 주민참여, 상향식 공모제, 농촌의 고유한 환경을 활용한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방한영, 2003).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세계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농촌의 역사문화자원이 훼손되고 공동체 문화가 소멸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서 마을의 전통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왔다(배기택, 2012). 농촌마을이 가진 독특한 유·무유형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면서도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마을과 지역에 문화공간을 확보함으

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농촌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0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문화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다(강원형, 2013). 여기에서 '신문화공간(新文化空間)'이란 농어촌을 문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과 도농 간 문화교류 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심리적 범위로서 특정 공간만이 아닌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개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교류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존의 활용도가 낮은 농어촌 공동시설 등을 교류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문화교류활동을 활성화하며, 도시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전영미, 2010).

그동안 농어촌마을사업이 소득·생산·유통에 치중한 개발이었다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지역정체성을 찾아가는 마을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높다. 특히 농어촌 문화를 재생산하여 생활-문화-경제가 선순환 되는 거점문화공간으로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강원형, 2013).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중 하나인 제주가시리마을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목축문화를 복원·활용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매개로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있다.

3. 제주 가시리의 목축문화

제주의 역사는 마정(馬政)의 역사라고 할 만큼 말과 관련이 깊다(강만익, 2013). 제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이미 말을 기르고 있었으며, 탐라국시대 고려왕조에 편입되기 이전에도 우마

(牛馬)사육이 활발했다. 조선시대의 제주마를 탐라마(耽羅馬), 제마(濟馬), 토마(土馬), 조랑말 등으로 불렀는데, 특히 조랑말은 몽골에서 유입된 말로 성질이 온순하고 발굽이 강인하여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다. 조선시대에는 제주의 목축문화가 전국에 전파되었을 정도로 제주마의 명성이 높았다. 특히 군마로 공급되기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마을공동목장이 설치되었다(김동전·강만익, 2015; 장덕지, 2007).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에 위치한 가시리는 조선후기부터 산마장의 하나인 녹산장(鹿山場)¹⁾이 설치되어 품질이 우수한 산마(山馬)가 생산되었다. 가시리 초지대에는 갑마장(甲馬場)²⁾이 설치되어 인근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량마를 집중적으로 사육하기도 하였다. 1894년 이후 녹산장과 갑마장이 공식적으로 폐장되면서 주민들에 의해 농경지 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 갑마장 터를 중심으로 가시리 공동목장이 설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마을공동목장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우마를 방목했던 목축지로, 전국에서 오직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목장제도이다. 마을공동목장은 하나의 마을 또는 인근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동으로 설치·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성은 생존을 위해서는 혈연적 유대보다 마을 구성원 간의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의미한다(고문석·장덕지·양성룡, 2013; 장덕지, 2007; 제주특별자치도, 2010).

가시리 공동목장 내에는 여러 목축시설이 남아 있다. 목감막터, 목감집, 급수통, 물이 고이는 자연습지, 부구리통(진드기 구제장), 목도(牧道)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목감막은 테우리(牧子)들이 방목기간에 임시로 거쳐하던 집이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 공동목장 내 돌담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테우리막을 허물어 이용하면서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 '목감'이란 일제시대에 우마방목을 책임지던 사람으로, 목장 내 목감막에서 거주하며 방목한 소를 관리했다. 진드기 구제장은 우마의 해충을 퇴치하기 위거나 낙인을 찍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던 곳이다(김동전·강만익, 2015).

가시리는 녹산장, 갑마장, 공동목장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에서 제주목장사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기억하는 가시리 마을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마을 공동목장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팔아넘기지 않고 보존하여 부(富)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마을주민들은 공동목장 매각이 야기할 마을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환경파괴를 예측하여 공동목장 토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문화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공동체의식, 협동심, 목축문화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III.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

1) 녹산장은 조선 선조·광해군 때 현재의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한남리~수망리 중산간 일대에서 개인 목장을 운영했던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이 임진왜란 당시 조정에 전마(戰馬)를 헌마(獻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등장한 산마장 중 최대 규모의 목장을 말함(제주특별자치도, 2010).

2) 갑마장은 녹산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목장으로 1899년에 만들어진 '제주지도'를 참고해 보면 약 10년 동안(1794~1899) 운영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산마장과 인근 국마장에서 생산된 말 중 진상하기 위해 선정된 상등마(上等馬), 즉 갑마(甲馬)들을 임시로 길렀던 목장임(제주특별자치도, 2010).

〈표 1〉 연구의 절차

목표	활동 내용	
자료수집	학술적 글쓰기 내용과 형식의 구상, 문헌자료 및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 답사 등	
자료의 구체화	연구계획서 설계, 조사 내용, 구술 조사 항목 구체화, 조사 규모와 범위, 시기 예상, 조사비용 및 조사 비품 마련, 사진 점검	피 드 백
현지조사	참여관찰, 구술 진행, 현지 자료수집, 문서정리	
녹취작업	녹취, 감독, 편집, 구술자 소통	
구술자료 독서 및 분석	분석의 조직화, 주제의 조정 및 구체화, 구술자 소통	
학술적 글쓰기	연구형식에 따른 글쓰기 및 구술자 검토	
추가 조사와 보완	구술자의 요구사항 반영	

여 기록하는 구술 증언을 적용하였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마을 만들기는 마을주민이 추진주체가 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구술사는 역사에 대한 주류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윤택림·함한희, 2007). 비교적 장시간의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에서 구술자와 연구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쓰여지는 역사이다.

구술사 연구방법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접근되고 있지만, 각 단계의 주된 목표와 활동 내용은 문제의식의 출발, 문제의식의 구체화, 현지조사, 녹취작업, 구술자료 독서 및 분석, 협의의 학술적 글쓰기, 추가 조사와 보완 등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김귀옥, 2010).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참고하여 활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준수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의 단계는 개념적 준거 틀 구축하기, 연구 질문 설정하기, 사례 정의하기, 표본추출 등의 절차로 구성하였다(Milles & Huberman, 1984).

먼저,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의 틀은 Weaver (2007)의 융합이론 중 융합의 동인, 과정,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

업이라는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융합의 과정과 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기업 네트워크(SLEN: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s)모델(Wheeler, McKague & Thompson, 2003), 김영수·박종안(2009)의 지속가능한 체험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을 참조하였다.

SLEN 모델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는 지역 커뮤니티,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경제적, 사회적, 인적, 생태적 가치를 자기조직화(self-organized)하는 과정을 통해 창출한다는 이론으로(Wheeler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투자, 지속가능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결과 등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김영수·박종안(2009)의 모델에서는 투자(내부, 외부), 프로세스(커뮤니티 핵심역량), 지속가능한 결과 등의 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한편 연구 질문은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서 시작하여, 후에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되고, 현장조사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 질문내용은 김영수·박종안(2009), 이한성·이상학·윤승원(2012) 등에서 추출하였으며,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에서 사례는 제한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으로 정의 할 수 있는데, 사실

〈표 2〉 인터뷰 내용의 구성요소

구분	인터뷰 내용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당시 마을의 환경적 여건은? - 사업신청 당시 마을의 사회문화적 여건은? - 사업신청 당시 마을의 경제적 여건은? - 마을의 자기자본의 여건은? - 마을자본의 주요 자원은 무엇이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당시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은? - 사업신청 당시 정부의 투자지원은 어떠한가? - 사업신청 당시 행정, 전문가 등 외부 인적자원과의 교류는 활발했나?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되었나? - 갈등은 어떻게 해소시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성은 잘 유지되었나? - 의사결정 과정에 내부민주주의가 실천되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이 공유되었나? - 비전을 명문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는 시스템화 되었나? - 자문단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 행정적 지원은 원활하였나?
자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에서 창의적 아이템이 발굴되었나? -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고려하였나? - 문화자원의 활용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발휘되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관점이 유지되었나? - 공조를 통한 시너지는 창출되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에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유도되었나? - 자원개발에서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유도되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었나? - 자원개발에서 관광서비스산업 창출이 고려되었나?
융합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가 어느 정도 복원되었나? - 사업 후 마을의 이미지가 좋아졌나? - 사업 후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강화되었나? -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증가하였나? - 공동체문화가 복원되었나? - 삶의 질이 향상되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나? - 사업전과 후의 소득변화는 있었는가? - 창출된 사업에서 수익은 발생하였나? - 방문객 수와 매출액은 얼마인가?

상 사례는 연구자의 분석 단위이다. 본 연구는 다소 장시간에 걸친 마을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단일사례로서 제주의 가시리마을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의 범위는 사례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를 뒷받

침할 과정 또는 구조를 밝히고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창출된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으로 한정하였다.

3. 심층면접 및 글쓰기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연구와 유기적으로 병행해 나갔다. 심층면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 '가시리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의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담은 사전에 면담을 요청한 후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1회 인터뷰시간은 2시간~5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내용은 구술자의 허락 하에 녹음되었으며, 면담 종료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면담자와의 라포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한 것은 물론 마을회의, 대소사 등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여 마을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내부자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면담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중립적인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구술자들의 녹취는 모두 전사를 거쳐 편집되었으며, 동료검토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었다. 편집본이 완성된 후에는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과정을 거쳤는데, 인터뷰 전사 파일을 구술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토록 한 후 내용의 수정, 삭제, 오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였다.

본격적인 글쓰기는 녹취록을 독서하며 검독하는 단계에서 시작하였으며, 문헌자료, 온라인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터뷰 내용과의 어떤 차이와 유사성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헌, 보고서, 행정 자료, 온라인 자료 등의 자료들을 취합하고 교차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리된 편집본에 대해서는 독서를 반복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독서한 후에는 연구주제에 따라 상세 주제별로 각 구술자의 경험을 분류

하게 된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주·객관적인 측면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역사적 글쓰기 과정은 맥락 중심의 해석에 기반 한 재구성적 교차분석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김귀옥, 2010).

하지만 글쓰기는 현지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에 착수하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현지에서의 참여관찰을 하고 돌아온 후 참여관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글쓰기를 계속하였다. 참여관찰은 심층면접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마을의 행사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시간적 지연에 따른 기억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관찰 종료 후 바로 감상을 기술하고 사진을 첨부한 후 이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는 Flinders(1992)의 공리주의 관점에서 고지된 동의에 한해 보충조사하고, 현장조사 시 해로움을 끼치지 않았으며,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 비밀을 보장하였다.

IV. 융합관광 형성과정의 구술사

본 연구의 참여자로 등장하는 구술자의 인적사항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구술자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추진 이전부터 2016년 4월까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증언하였으며,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경험이 부족한 J와 N은 사업 추진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더 집중된 증언을 하였다.

구술자들의 이름은 익명을 위해 부호화하였다. 출생지, 직업 등 이들의 인적사항과 인터뷰 횟수 등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구술자 인적 사항

기호	성별	본인 출생지	부모 출생지	인터뷰 횟수	사업추진 시 직업
A	남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4회	농업
B	남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5회	농업
C	남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1회	목축업, 농업
D	남	제주도 외	제주도 외	3회	전문업
G	남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1회	개인사업
H	남	제주도 외	제주도 외	1회	전문업
I	남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1회	농업
J	남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2회	농업
K	남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2회	농업
L	남	제주도 외	제주도 외	1회	전문업
M	여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외	1회	전문업
N	여	제주도 가시리	제주도 가시리	1회	농업 및 서비스업

1. 융합의 동인

1) 대내적 요인

가시리는 제주도 남동쪽 해발 90m~570m 고도에 해당하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면소재인 표선리에서 북서쪽으로 7km 지점에 설오름, 병곳오름, 따라비오름 등 13개의 오름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분지지대이다.

가시리(加時里)라는 마을 이름은 600여 년 전 제주 청주한씨 입도조인 한천(韓天)이 가시오름(加時岳) 주변에 마을을 설촌 했다고 해서 ‘가시오름마을’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가 수가 전체 가구의 84.4%인 380가구에 달한다. 주요 농산물은 역시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이며, 이외에도 더덕, 무, 당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시리는 특히 중산간지대 분지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국마를 길러냈던 산마장(녹산장)과 갑마장 등이 설치될 정도로 목축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곳이다. 제주전통의 목축문화, 풍부한 자연자원, 이를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목과 3개의 기업목장이 있다(가시리신문

화공간조성사업추진위원회, 2010).

C: 우리 목장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가 그 당시에만 해도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장에 제주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하고 협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목장을 이용한 사업들을 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 녹지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 다. 더구나 목장이 점점 황폐화가 돼가고 있었거든요.

연구자: 공동목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C: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마을에 옛날보다 소나 말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다 가시덤불화가 되고, 그러다보니 목장이 나중에는 가시덤불이 될 것이고, 그럼 썩대밭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삼림훼손이다, 아니면 환경파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원래는 초지였지만요. 목장을 어떻게 하면 효

*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라고 해서... (중략)*

가시리는 전통적으로 말과 소를 육성했던 마을이었다. 하지만 70년대 경운기가 등장하여 말과 소의 효용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마을주민들은 목축업에서 감귤농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었다. 현재 가시리의 감귤재배면적이 1.71km²에 이르러 전체 재배면적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보면 가시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연 3억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탄탄한 편이다. 비교적 대단위 감귤농업을 하면서 젊은 층이 많고 인적구성에서도 다양한 편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주민 역량은 부족하였다. 더구나 마을이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어 도농교류 기반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리적 한계는 마을의 문화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부족을 초래해 전반적인 문화역량을 떨어뜨렸다(지금중, 2011).

(중략) 그래도 다른 마을보다는 좀 나왔죠. 수익적인 부분 이외예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70, 80년대까지는 빈민층이어서 어려웠었죠. 후에 시설감귤도 많이 하고, 하우스 감귤, 노지 밀감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가시리가 부농이 됐죠. 표선면이 서귀포 관내에서는 그래도 변화가잖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가시리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 할 정도니까요. (G)

2) 대외적 요인

제주에서는 2007년부터 살기 좋은 마을을 겨냥하고 마을에 자치역량을 키워서 제주발전의 기틀로 삼고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한삼인, 2012). 그때까지만 해도

가시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 화천리, 세화리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인근 마을을 보면서 가시리는 적잖은 자극을 받았다.

이에 2009년, 가시리는 '가시리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이 사업은 주로 마을의 외형적 개발과 관계되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응모한 이 사업에 미 선정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의 한방편으로 같은 해에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도 응모하게 된다.

(중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알아보니깐 한 70등, 80등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00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깐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겠다라고요.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것 같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000씨가 "또 하나 사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예요. 이게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2009년 1월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서귀포시청을 찾아 갔죠. 농정과를 찾아가보니 이런 사업이 있는 지도 몰라요. 사실 주무관한테 문서가 왔는데 문화라는 문구가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갔고요. 그래서 주무관한테 '확인해보십시오.'해서 도전을 했죠.

(중략) 6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돼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하게 됐던 거죠. 행정에서도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먼저 알고 유치한 거죠. 우리 마을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탈락했을 때 주민들에게 너무 실망감을 크게 주지 않기 위해 보완대책으로 했었는데, 두 가지 사업이 다 돼버려서...(A)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응모한 가시리는 그해 3월에 전국 6개 권역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20억을 지원받게 된다. 마을에서는 로또를 맞았다고 기뻐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과 이전에 신청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모두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2. 융합의 과정

사업에 선정된 후 가시리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는 우선 마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가시리만이 갖는 특수성은 있는가? 가시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 약점은 무엇이고,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추출해야 하는가? 등 사업 비전과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마을조사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다.

(중략) 마을조사요. 이 마을이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은 어떤 걸 생산하고 있고, 주민들 구성은 어떻게 되고, 주변 환경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마을의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구축을 다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스테디를 한 거죠. 그래서 문화지도라는 것을 만든 건데요. 그걸 콘텐츠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차별성 있는 자원은 어떤 거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잡아서...(중략) 방문객 중심의 공간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공간,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갑마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D)

1) 네트워크

마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시리는 구체적

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행정, 전문가, 민간 자문가 및 협력조직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행정에서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의해 설치된 구조물,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지·관리하였다. 주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추진상황의 점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작성, 기본설계, 세부설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발주와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였다. 또한 사업추진협의회 또는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관련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는데, 주로 동호회 및 학습회 운영, 교육, 견학, 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아이디어와 자원 등을 교환하고 공간을 운영할 주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중략) 행정에서 "아, 이 사람은 인적네트워크가 돼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암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을 정도는 돼야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청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청해요. 자료 같은 것도 자기네가 못 구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 구해 달라." 강사 섭외할 때 견학 갈 때 "어느 마을로 갈까요?" 해서 섭외해 주고요. 그 정도 위치가 되면 행정하고 일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중략)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 요구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귀찮아서 안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되면 위험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규정을 갖다 대면서 해달라고 하죠. 회의록, 규정 등을 갖다대면 안 해 줄 수 없지요. "저것은 가능한 거니까 얘기를

하는 구나.” 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요. 애매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도 합니다. 그런 다음 행정에 요구하거든요. 완벽한 것을 갖고요. 그러다보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게 된 거지요. (A)

사업의 실제적 추진은 마을에서 영입한 PM (project manager)이 가시리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자문단, 행정 등이 서로 협업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업계획의 추진전략에 따라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실행해 나갔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공사기일, 사업비, 인허가 문제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리는 행정하고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내야 했다. 실제로, 목축박물관의 경우도 2011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사정으로 지연돼 2012년 9월 개관하게 이른다.

(중략)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을 얼마를 쓰는지 보고를 하거든요. 가장 큰 거는 그거고요. 나머지는 서로 의논하면서 해결하면 되니까... 독촉하죠. (웃음) 그래도 안 됩니다. 놀면서 안하는 거 아니니까 하다가 정 안되면 명시를 해요. 매년 일 년 지연됐어요. 조랑말체험공원도 이 명시로 인해 마지막에 맞출 수 있었던 거지요. 막바지를 좀 세부적으로 맞춘 거지요. 특별한건 놔두고 큰 거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오죠. 사업의 명시를 딱 2월말까지 했었습니다. 예전에 2월 말까지로 썼으니까요. 촉박하니까 두 달해서 12월까지요. 다음 2월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L)

2) 자원 개발

마을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시리는 녹산장, 갑마장 등 제주마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하고 있었다. 가시리마을만들기추진

위원회는 목축문화를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상정하게 된다. 7.5km²에 해당하는 대평원에 조성된 공동목장과 잣성(둘로 쌓은 울타리) 등 목축문화의 생태환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시리의 자연 생태 및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목축문화의 발굴, 복원, 재창조를 통해 방문객 중심의 목축 박물관을 계획하였다. 원래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접목하여 목장과 주변의 자연생태를 함께 이용해 휴식과 체험이 가능하고 마을의 역사성이 연계되도록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관광사업을 고려해 조랑말체험공원으로 확장되었다.

(중략) 마침 제주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감귤과 전복과 말(馬) 등이 3대 공물인데, 말과 관련된 박물관이 없더라고요. 감귤박물관이나 해녀박물관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마침 이 가시리가 갑마장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최대 국영목장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박물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잊혀져가는 말과 관련된 역사자원을 찾아내서 콘텐츠를 가공하는 과정이 있었죠. (D)

가시리와 같이 마을은 일차적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최소 단위이며 지역집단을 이루는 싹틔출과 같다.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물론 계층, 가족, 교육, 문화, 경제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실재하는 하나의 장이다(김일철, 1982). 하지만 그런 다양한 요소는 마을 내부에서의 유기성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마을은 외부성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 마을 밖에서 보는 마을의 모습은 마을 안의 또 다른 마을인 것이다.

(중략) 저는 굉장히 좋아요. 성과가 많이 났죠. 이런 사업은 전문가가 무조건 필요해요. 주민들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절

대 못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가 없어요. 가시리에 오래 살았지만 우리 마을의 좋은 점을 몰라요. '왜 좋지?'라고 하지만 마을 밖의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그게 흔하니까 '이게 왜 좋지?' 라는 의구심을 전문가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깨우치게 해줘요. 특히 전문가들이요. (M)

가시리를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 사실 가시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를 영입하였다.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마을 문화를 복원하는 데에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마을내부에서 마을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전문가를 영입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함께 했으며, 사업에 선정된 후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PM(project manager)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다.

A: 도전을 했는데 문화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접근하기가 힘들겠다고 판단해서 마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던 000씨가 전국에 공지를 보냈어요. 문화관련 지인들한테요. 마을일을 같이 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찾았는데, 마침 그때 000씨가 귀촌을 준비할 때였어요.

연구자: 귀촌요? 문화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요?

A: 네. 사회운동가죠. 0000의 0000 출신이니까요. 우리나라 한 때는 문화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 분이 귀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연결이 돼서 우리 마을의 일을 하게 된 거죠.

본 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향후 지

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모델은 창출되어야 했다. 이에 가시리는 추진 중이던 목축박물관에 승마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수익성을 보완하였다. 마을의 문화자원을 가공·유통시켜 관광객의 유입을 견인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운영·유지가 될 수 있는 마을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중략) 갑마장은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 낸 것이지 없었던 걸 만들어 낸 건 아니죠. 목축문화가 현재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축산업인 1차 산업을 관광의 3차 산업으로 연계해서 만들어 낸 거죠. 연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말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최고 쉽게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승마체험, 또 아니면 전문은 아니더라도 승마 인구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안심하고 말을 탈 수 있는 외승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연계가 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돈을 쓰더라도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C)

3. 융합의 결과

1) 사회적 가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2011년에 종료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2012년 9월에 조랑말체험공원이 개장하게 된다. 마을의 목축문화를 테마로 조랑말박물관, 승마장,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었으며,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구술내용 참조). 마을 문화자원의 가치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능이 유지 및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화적 요소가 증가한 것이지만, 이는 결국 마을 정신이 복원된 것으로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다.

K: 우선 의식구조가 달라졌고 예를 들면 밭일만 하다가... (중략) 수치적·금전적으로 보면,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활력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마을 이미지가 엄청 높아 진거지요. 유입인구도 많아 졌고요. 밀감을 팔아 수입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가시리 전체로 봤을 때 10만 원 짜리가 30만원 50만원이 된 풀이니까요.

면담자: 마을의 자산가치가 높아진 거군요.

K: 좁이 아니지요. 아주 많이 높아진 거지요. 개인 고정자산도 아주 높아 졌다고 봐요.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요. 그 전에는 내가 '가시리에서 왔어요.' 라고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시리에서 왔다고 하면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2) 경제적 가치

조랑말체험공원은 그동안 위탁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5년 12월부터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적절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 및 보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동안 마을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도 해결됨으로써 주민의 방문도 늘어나는 등 마을주민의 정서적 지지도 올라가고 있다. 수익부분에서는 2014년 기준 5,000월에 머무르고 있는 객 단가를 10,000원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중략) 첫째는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 2년 3년이 작년, 제작년이었던거지요. 아무래도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1~2년 안에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작년도 10만 명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객 단가는 낮지만, 이것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또 하나는 큰 사업

이다 보니까 기반시설들이 항상 부족해서 다시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2년에 불과하고, 지금은 작년에 세월호, 메르스 등 여러 사고가 나면서 관광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예요. 하지만 마을에서 조금만 더 보태주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

4. 논의

이상과 같이 농촌관광의 창출 과정에 대해 구술자들의 경험을 듣고 정리하고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구술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를 융합의 동인, 과정, 결과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융합의 동인에서는 생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등 지역자원으로 범주화되었다. 생태적 자원에는 오름, 풍력, 목축문화, 사회적 자원에는 행정지원, 마을 외부 인력과 네트워크,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 인적자원에는 사업 추진의지, 마을 리더들의 역량 등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융합의 과정의 범주는 네트워킹과 관광콘텐츠화 등 지역문화의 재창조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킹에는 수평성, 협력, 관광 콘텐츠화에서는 고유성, 창의성, 수렴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융합의 결과에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생태문화관광 창출로 범주화되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에는 목축문화보존, 공동체 복원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는 마을의 상징, 주체역량강화, 마을이미지 제고, 마을가치 상승,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는 관광산업창출, 수익모델 구축, 관광객 유입, 소득창출, 주민고용 등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표 4〉 구술 내용의 유형화

융합의 동인			융합의 과정			융합의 결과		
범주	계열	계 (비율)	범주	계열	계 (비율)	범주	계열	계 (비율)
생태적 자원	- 목축문화 - 공동목장 - 오름	12 (42.9)	네트워킹	- 수평성 - 협력	8 (36.3)	생태적 지속가능성	- 목축문화보전 - 공동체복원	8 (17.0)
사회적 자원	- 행정지원 - 마을외부 네트워크 - 마을발전 의지	7 (25.0)	관광 콘텐츠화	- 고유성 - 창의성 - 수렴성	14 (63.7)	사회적 지속가능성	- 마을의 상징 - 주체역량강화 - 마을이미지 제고 - 마을가치상승	21 (44.7)
인적 자원	- 추진의지 - 리더역량	9 (32.1)	-	-	-	경제적 지속가능성	- 관광산업창출 - 수익모델구축 - 관광객유입 - 소득창출 - 주민고용	18 (38.3)
계		28 (100.0)	계		22 (100.0)	계		47 (100.0)

V. 결 론

본 연구는 농촌관광이 창출되는 과정을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계획, 실행 등에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관광현상과 관련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구술사를 적용하여 지역문화자원이 콘텐츠로 개발되어 관광서비스로 창출되는 과정을 구술자들의 경험에 기반 하여 채록·해석·기록하였다. 1년 6개월 동안의 참여관찰과 구술 증언, 문헌, 온라인 등의 자료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화기반 농촌관광의 융합의 동인, 과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융합의 동인으로는 생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등 지역자원이 도출되었다. 조랑말체험공원을 창출하는 데는 목축문화라는 생태적 자원과 사회적 지원으로서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마을 외부와의 네트워크, 주민들의 지지, 그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시리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마을리더의 역량 등의 인적 자

원이 농촌관광을 추동하는 요소가 된다.

융합의 과정에서는 네트워킹과 관광콘텐츠화를 통해 지역문화가 재창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인 목축문화를 복원하여 전국 최초의 리립(里立)박물관 조성이라는 창의적인 기획하에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마을 내·외부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1차 산업인 목축업(자원)과 육성(가공) 중심의 2차 산업과 융합하여 3차 산업(관광서비스산업)으로 창출되는 수렴성을 보여주고 있다.

융합의 결과로는 생태문화관광이 창출됨으로써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랑말체험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마을자원의 보전이라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지역 가치 제고 등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창출된 관광자원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킨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농촌관광은 산업융합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장혜원, 2016; Weaver, 2007). 지역의 문화자원을 융합하여 생태문화관광으로 창출되는 것은 지역문화의 생성-유통(매개)-향수-체험-생성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6차산업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2·3차 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수평적으로 통합이 일어나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가치사슬로의 수직적 확장 및 영역의 재구성된다. 즉, 경계의 해체와 분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융합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포함한다. 농촌관광은 한정된 장소에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지역의 자연, 역사, 생활, 노동행위 등과 같이 마을 전반을 체험함으로써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적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박종안(2011)과 김영수·박종안(2009) 등의 연구에서 농촌관광을 장소적 개념으로 접근한 것과 차별된다. 또한 농촌관광의 창출을 통해 문화(자원)-사람(관광객)-경제(관광자원)의 내부순환구조(지금중, 2011)가 형성되면서 지역의 내생적인 지속가능성을 영위케 한다(송영민, 2010; 이진형 외, 2011).

셋째, 관광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구술사는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이명선, 2015). 구술사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현지점에서 해석해냄으로써 그 성과가 어떻게, 왜 창출되었는지 등과 같은 구조를 밝히는데 더 적절할 수 있다. 피상적인 유형, 추세, 상관관계의 묘사가 아닌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이 가능한데, 이는 구술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배경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택림, 2013). 이런 점에서 안중현(2008)이 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를 각각의 변수로 접근한 연구와 다르게 농촌관광이 형성되는 과정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의 창출은 지역가치에 대한 의미화 과정이다.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 개발, 관광서비스의 창출과정에서 자신들의 역량이 개발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미화과정이 활용적인 측면의 사회화과정보다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농촌관광의 창출은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마을관광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환원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무관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권봉관, 2016; 배기택, 2012; 안중현, 2008).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마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이 더욱 강화된다.

아직 관광학에서 구술사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탈근대사회에서의 심화된 다양성을 연구하는데 거대담론만으로는 해석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정 이론(situation specific theory)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관광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질적 연구는 도움이 된다. 구술사가 비록 일반화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특수한 맥락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갖는다(마동훈·강재영·오원한, 2010; Denzin, 1997; Morrison, 1998).

참고문헌

-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사업추진위원회(2010). 『문화지도 제주 가시리』. 제주.
- 강만익(2013). 『일제시기 목정조합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강영은·박미정·김상범·김은자(2012). 카드분류법을 통한 농촌관광자원 유형 분류: 농촌어

- 매니티자원 DB를 중심으로. 『휴양 및 경관 연구』, 6(2), 63-71.
- 강원형(2013). 『주민참여형 지역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문화매개자를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고문석·장덕지·양성룡(2013). 『제주말문화』. 제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 권봉관(2016). 『국가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의 경우』.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 권영미(2010). 『농촌관광 체험품질 측정도구 개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귀옥(2010). 구술사 쓰기의 방법과 절차: 사례에 기초한 이론화의 시도. 『구술사연구』, 창간호, 77-115.
- 김남조(2004).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관광현상 구성 요소를 이용한 농촌관광정책의 방향. 『관광학연구』, 28(1), 263-281.
- 김동진·강만익(2015). 『제주지역 목정사와 목축문화』. 서울: 경인문화사.
- 김미경·이희찬(2007). 농촌관광 시장세분화와 수요결정요인 연구. 『관광학연구』, 31(3), 153-170.
- 김보미(2015). 『감성어휘를 활용한 농촌관광이미지 측정척도 개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_____(2010). 『농촌관광마을의 주민 간 갈등이 마을 운영성과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성호(2012). 융복합예술의 현황과 전망. 『예술문화비평』, 7, 14-41.
- 김영수·박종안(2009).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167-206.
- 김인환(2009). 『농촌관광사업 추진주체의 파트너십 및 갈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일철(1982). 지역사회연구의 동향과 그 과제. 『한국사회학연구』, 66(1), 1-12.
- 김종성(2014). 『농촌관광의 만족도가 농특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 도경록·박덕병(2012). 농촌관광 경영주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환경. 『관광연구』, 27(5), 117-139.
- 마동훈·강재형·오원환(2010). 한국 방송의 초기 아나운서연구: 미시사적 구술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연구』, 27(2), 59-87.
- 박덕병·김소윤(2016).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 농촌관광마을 공동사업 운영자의 경영역량특성 분석. 『관광학연구』, 40(6), 111-126.
- 박시현(2003).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종안(2011).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모델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박주희(2009). 주민주도형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 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학회』, 19(2), 207-242.
- 박한식(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모델 개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헌춘(2012).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농촌 마을 만들기』.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방한영(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배기택(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 만들기』.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성윤미(2008). 『농촌관광사업의 주민갈등이 조직몰입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화천군 농촌관광사업 추진마을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손기호(2007).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송영민(2010).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농촌마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4), 249-272.

- 신동희(2011). 『스마트 융합과 통섭 3.0』.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안중현(2008).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안희자·심원섭(2013). 『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승영(2009).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 연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미발행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오형은·김용근(2004). 농촌관광마을의 경관보전활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관한 기초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1, 58-73.
- 윤택립(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윤택립·함한희(2007).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명선(2015). 질적연구의 다양성. 『제14차 대한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pp. 11-44), 대한질적연구학회.
- 이병원(2005). 『농촌관광사업에서 마을주민들이 인식하는 갈등의 원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이상태·허영란(2004). 『현황과 방법, 구술, 구술자료, 구술자』. 경기: 국사편찬위원회.
- 이진형·정대영·이정아·전진형(2011).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유형 및 농촌관광마을 계획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 『관광학연구』, 35(8), 4029-426.
- 이학주(2010). 인제군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명품마을 만들기. 『농어촌관광연구』, 17(1), 91-116.
- 이한성·이상학·윤승원(2012).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의 평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후석(1998). 교류형 관광농촌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153-161.
- 장덕지(2007). 『제주마이야기』. 제주: 제주문화.
- 장우환·권중섭(2011). 농촌마을공동사업의 갈등 양상과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34(3), 17-40.
- 장혜원(2016). 융합관광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40(3), 55-69.
- 전영미(2010).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전남: 한국농어촌공사.
- 제민일보(2012.05.29.). 가시리 문화변신은 계속된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573>
- 제주특별자치도(2010). 『가시리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주목축박물관 및 가시리문화센터 운영계획』. 제주.
- 지금중(2011).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활동: 제주도 가시리 마을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6, 311-339.
- 최성준(2009). 『농촌체험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양평군 사례를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한국구술사연구회(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서울: 도서출판 선인.
- 한삼인(2012). 『제주의 마을을 품다』. 제주.
- 延藤安弘(1997). まちづくり讀本. 김찬호 역(2001).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서울: 황금나무.
- Denzin, N. (1997). *Interpretive ethnography*. London: Sage.
- Miles, M., & Huberman, A. (1994). 『질적자료 분석론』,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박태영 외 7명 공역). 서울: 학지사. (2009).
- Miles, M., & Huberman, A. (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Inc.
- Morrison, D. (1998). *The search for a method*. Luton, Beds: Luton University Press.
- Weaver, B. (2007). Industry convergence-driving forces, factors and consequences. Paper submitted to the 19th NFF conference. Bergen, Norway, Aug. 9-11.
- Wheeler, D., McKague, K., & Thompson, J.

(2003). *Sustainable livelihoods and the private sector: How development agencies can strengthen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s*. Ontario: School of Business, York University.

2016년 8월 16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6년 11월 15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6년 11월 25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